

여주시청 김은미 크로스컨트리 '금'

실업육상연맹대회 여자 8km 우승 지난해 이어 올 전국대회 정상에 10월 전국체전 좋은 성적 기대

여주시청 육상 김은미(사진)가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여주시청 김은미가 제주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실업육상연맹 전국 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은미는 이번 대회 여자 개인부 8km에 출전해 29분 42초의 기록으로 2위 정현지(논산시청·30분 21초), 3위 김유진(경산시청·30분 28초)을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은미는 지난해와 올해 전국대회에서 두 차례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구미시청 육상팀에서 여주시청 육상팀으로 이적한 김은미는 대표적인 중장거리 선수다.

그는 지난해 6월 열린 제50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5000m에서 34분35초58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103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39분28초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남자부 개인전 출전한 박대성은 26분 38초로 3위 박종학(한국전력)에 1초 뒤진 4위를 기록해 다음대회 메달 가능성을 열었다.

김재성 여주시청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고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청 장애인운동부 양궁·사격 4명 영입



신규 영입된 광주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과 사격팀 선수들. 박동안(왼쪽 아랫줄부터), 박승우, 김란숙.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과 사격팀 신규 선수 4명이 영입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31일 광주시청에서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식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새로 영입된 선수는 양궁 김란숙, 권유나(이상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 사격 박동안(광주시사격연맹), 박승우(영입).

양궁 권유나와 사격 박승우는 광주시청 직장운동부 세대교체 차원에서 영입한 젊은 선수들이다.

김란숙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2020 도쿄 패럴림픽 국가대표, 2022년 제1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3개(시범 종목 포함), 은메달 2개를 획득한 광주장애인양궁

간판스타다.

권유나는 2022년 제1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금메달 1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범 종목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

2020년 공기소총 우수선수로 영입한 박동안은 광주시장애인사격연맹 소속으로 2021년 장애인사격 공기소총 국가대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 2022년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기 금메달 3개 등을 획득했다.

공기소총 20대 유망주 박승우는 2022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로 2022 알아인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용대 "은퇴 준비요? ...마흔까지 뛰고 싶다"



화순 출신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35·요넥스·사진)는 재작년부터 팀 내 최고참으로서 플레이 코치까지 맡고 있다.

2008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 2012 런던올림픽 남자복식 동메달의 영광을 뒤로하고 태극마크 내려놓은 지는 7년이 지났다.

국제대회 타이틀은 2020년 1월 말레이시아 마스터스가 마지막이다.

슬슬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냐는 예상이나 올 수 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1일 만난 이용대의 열정은 그대로였다.

2023 요넥스 트레이드쇼가 열린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난 이용대는 "선수 생활을 오래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일단 (은퇴 시점을) 마흔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가 들며 떨어지는 기량까지 부정하진 않았다.

이용대는 "예전에 뛰었던 경기를 보니까 정말

빠르더라"며 "솔직히 예전 같지 않다. 전성기 대비 60% 정도"라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베테랑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국제대회까지 다시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아직 (셔플룩을) 보는 눈은 죽지 않았다. 국제대회를 오래 뛰었기 때문에 길이 잘 보인다"며 "(베테랑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대회뿐 아니라 국제대회도 경험해야 스피드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회가 생겼을 때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대표 선배로서 현역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조언도 잊지 않았다.

여자 배드민턴 간판으로 자리매김한 안세영에 대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 방수현 선수를 잇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올림픽 금메달이 저 이후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배드민턴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자 복식 후배들을 향해선 "세대교체를 이룬 지 4년 정도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상위 랭커로 가기 위한 성적을 내야 한다"며 "남자복식은 우리나라가 강국이었다는 점에서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PGA의 강수

비회원이라도 LIV 뛰면 출전 불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LIV 골프에 선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수를 뒀다.

1일(한국시간) 골프 채널 등 미국 골프 전문 매체에 따르면 PGA투어는 2022-2023시즌부터 "승인받지 않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1년 동안 PGA투어 공인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PGA투어 멤버뿐 아니라 아마추어와 다른 투어에서 뛰는 비회원한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선수나 아시아프로골프투어에서 뛰는 선수가 LIV 골프 대회 출전 기회가 생겼다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연합뉴스

미 여고농구 20대 코치가 선수로 '황당 출전'

맹활약 했지만 적발 후 해고 해당 고교 남은 리그 불참

미국 여자 고등학교 농구에서 20대 코치가 선수로 뛰었다가 적발돼 해고당했다.

미국 NBC는 1일 "미국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의 처치랜드 고등학교의 여자농구 코치였던 윌리샤 보이킨스(23)가 선수로 뛰었다가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보이킨스 코치는 지난달 낸시먼드 리버하이 고등학교와 경기에 학생 선수 신분을 가장해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 당시 경기 영상을 보면 보이킨스 코치는 큰 키를 이용해 상대 팀 선수의 공격 시도를 블록 해내고, 반대로 공격에서는 과감한

돌파에 이은 추가 자유투를 얻으며 심판의 시그널을 따라 하는 여유를 보였다.

이 팀의 학부모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치가 아이들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보이킨스 코치는 지난해 8월 학교에 부임했으며 학교 측은 보이킨스 코치와 함께 감독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NBC는 "어떻게 코치가 선수로 경기에 뛰게 됐는지, 또 출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처치랜드 학교 관계자는 당시 경기장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처치랜드는 이번 시즌 남은 버지니아 고등부 리그에 불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NBA 새 역사 써 가는 '킹' 제임스

역대 최다 득점 기록 88점 남아... 어시스트는 역대 4위

미국프로농구(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킹' 르브론 제임스(39·LA 레이커스)가 통산 어시스트 순위에서는 4위로 올라섰다.

제임스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뉴욕 닉스와 치른 2022-2023 NBA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연장전까지 42분 56초를 뛰며 28점 10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시즌 첫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고 레이커스의 129-123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이날 11개의 도움을 추가한 제임스는 NBA 통산 1만33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마크 잭슨(1만334개)과 스티브 내시(1만335개), 두 전설을 한꺼번에 제치고 이 부문 역대 4위가 됐다.

2020년 1월 이후 부상과 출전 정지 징계 등으로 3년 만에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코트에 선 제임스는 이날 28점을 쌓으며 카리 압둘-자바가 가진 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3만8387점)에도 88점만을 남겨뒀다.

NBA 통산 20번째 시즌을 보내는 제임스는 이날까지 1407경기에서 3만8299득점을 올렸다. 압둘-자바의 득점 기록은 1560경기를 뛰며 작성한 것이다.



르브론 제임스(오른쪽)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

제임스는 NBA 통산 경기당 27.2점을 기록 중이다. 이 페이스대로라면 4경기만 더 뛰면 제임스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다. 오는 10월 밀워키 벅스와 홈

경기 때다. 제임스의 올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30.2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앞서 8일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홈경기에서 대기록이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유령
2관	바빌론, 교섭
3관	아바타: 물의 길
4관	상견니, 몬스터 하우스: 인버저를 피닉스
5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영웅, 메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7관 씨네커를	바빌론,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커를	영웅, 메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NEW YEAR CONCERT 2023
신년음악회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2-03(금)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